

부리자르기(디비킹)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취재/김동진 기자

지난달 전국적으로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계속되는 습한 날씨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계란수급조절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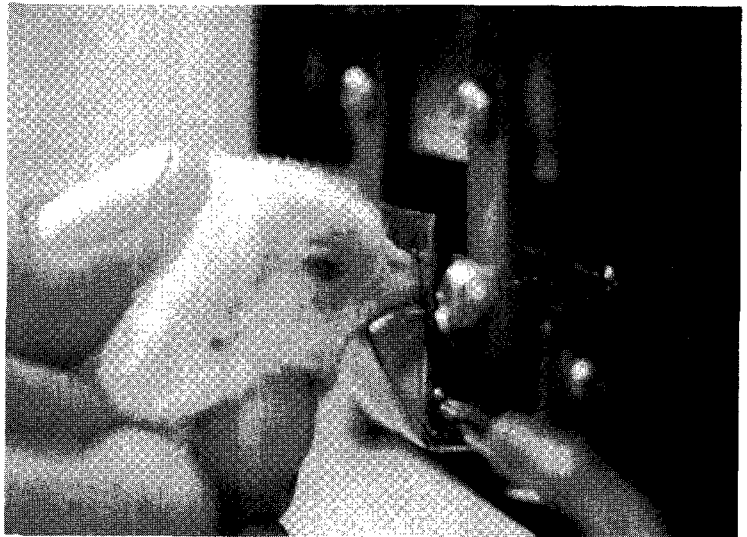
불량환경속에서 저항력이 약해진 닭들은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로 농장 경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이럴 때 일수록 사육가들은 평소보다 더 세심한 농장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사육가들이 자칫 소홀히 지나쳐 닭의 생산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중 부리자르기(디비킹)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농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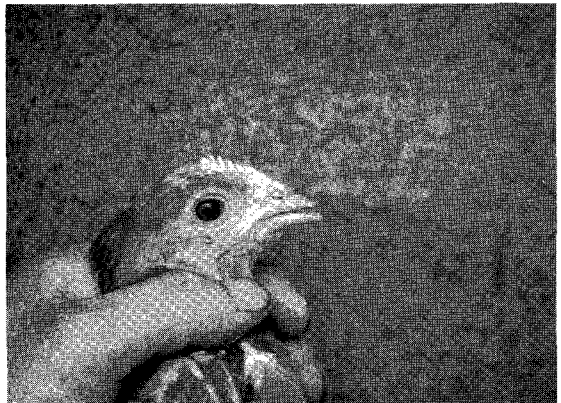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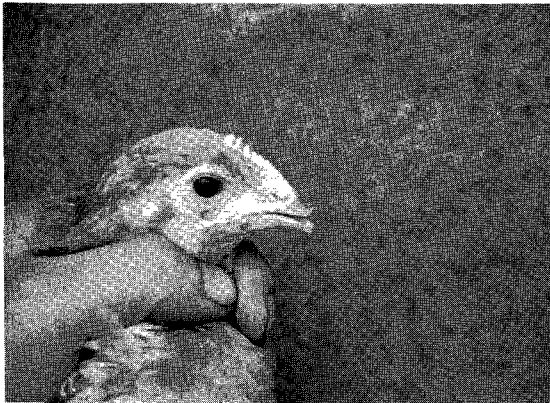
영에 보탬을 주었으면 한다.

부리자르기는 본래 평사사육에서 숫종계와 암종계의 교미시 숫종계가 암종계의 머리를 심하게 쪼아 상처를 입히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상처

부위로 각종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위해 고안되었던 특수관리법의 하나였다. 그러나 사육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산란계 뿐 아니라 육계에까지도 디비킹은 높은 생산성적을 위



△ 체란계의 디비킹은 보통 5~10일 사이에 행해지고 있으며 잘못했을 경우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할 수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1주령에 디비킹을 실시한 5주령된 닭의 모습.
(좌 : 잘된 상태, 우 : 생장점이 정확히 잘려나가지 않아 실패한 상태)

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많은 농가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디비킹을 실시하였다 해도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실시할 경우 오히려 심한 스트레스요인이 될 수 있다. 닭들은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체중이 낮아지고, 체중균일도를 떨어뜨리며, 산란피크도 저하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디비킹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가?

경기도에서 양계를 경영하는 K씨는 10여년동안 디비킹을 하지 않고 채란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탈항발생도 거의 없고 사료의 허실이 있을 수 있으나 생산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주고 있는가 하면 경남에서 채란업을 경영하는 L씨는 디비킹을 하지 않았을 경우 카니발리즘이 심하고 사료허실이 많으며 주령이 높아 질수록 성질이 포악해져 생산성에 큰 차질을 가져왔음을 경험한 후로 지금은 디비킹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서로간의 상반된 답변을 주었다. 그렇다면 과연 디비킹이 생산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것일까? 만약 디비킹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수당 15~20원이 들어가는 디비킹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비킹을 하면서 닭이 받는 스트레스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채란업을

하는 농장을 보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30%에 가까운 많은 농장에서 디비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아직도 디비킹에 대한 인식이 덜 되었거나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병아리를 공급하는 부화장들의 한결 같은 의견은 사육 환경에 따라서 닭들이 온순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며 디비킹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닭의 일생을 놓고 볼 때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디비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즉, 디비킹의 목적은 닭을 순화시켜 싸우는 현상과 닭을 쪼는 카니발리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료를 알곡위주로 편식하거나 흘뿌리는 현상을 방지하여 사료소모를 줄일 수 있고, 사료효율을 증진시켜 계란을 깨먹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 경남 S농장의 무창계사에서 55,000수씩 나누어 받은 디비킹을 실시하고 나머지 반은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 사료소모량을 측정해 결과 디비킹을 하지 않은 농장에서 50kg의 사료가 허실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이는 1수당 0.9g 정도의 사료가 더 허실된 것으로 이 농장의 경우 1년동안 500여만원의 사료비를 낭비한 셈이 된다. 디비킹을 하는 비용은 5만수계군의 농장에서 8명(일당 2만원)의 인부가 3일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계산할 때 48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와 비교해 볼 때 큰 손실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디비킹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디비킹을 하지 않는 농가에서도 디비킹의 효과를 충분히 참고하여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2. 무창계사와 유창계사의 차이

무창계사의 경우 유창계사보다는 어두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굳이 디비킹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디비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농장들은 탈항은 발생량이 적어 우려할 일이 없되지만 사료허실이 많고 주령이 높을수록 신경질적이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계분벨트로 이동되는 계란을 깰 경우 손실이 크다는 점도 지적해주었다.

한 예로 무창계사 8만수계군을 관리하는 한 농장의 경우 그동안 디비킹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계란이 이송될 때 계란을 깨뜨리는 닭들이 상당수 발생, 피해를 보면서 디비킹

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항상 같은 품종을 사육해 왔고 그동안 탈항발생도 거의 없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 농장은 이를 계기로 무창계사에서도 디비킹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무창계사가 탈항에 있어서는 유창계사보다 발생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다. 본회에서 실시한 31회 닭경제능력검정 성적을 보면 이를 엿볼 수 있는데 유창, 무창 모두 디비킹을 한 상태에서 64주말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유창계사에서 사육된 2,680수중 탈항으로

건강한 육추 출발 ⇨ 건강한 육성
⇨ 우수한 산란능력
크리닝된 깨끗한
초생추로 출발하십시오



Hy-Line®

Hy-Line Layers

한 양 부 화 장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0336-642-구구팔구

인한 폐사계가 91수로 전체 3.4%를 차지한 반면 무창계사에서 사육된 10,400수중 탈항으로 인한 폐사계는 131수로 1.3%로 나타나 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색깔로 구분해 볼 때 백색계의 경우는 갈색계의 경우보다 더 신경질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무창계사에서 백색계를 사육하는 농장의 경우도 디비킹을 실시했는데도 탈항이 예상외로 상당수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3. 디비킹 방법

보통 산란계의 경우 5~10일령에 디비킹을 실시하도록 권장되어지고 있으며 이보다 더 빠른 일령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주령이 지연될수록 닭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데 디비킹이 늦을 경우 며칠동안 사료를 섭취하지 못하는 닭들도 발생하여 균일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5~10일령에 1차로 부리절단을 하고 8~9주령에 잘못된 닭들을 선별해 디비킹을 실시해주는

◆ 부리절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고온스트레스나 질병 등으로 계군의 상태가 불량할 때는 부리절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서두르지 말고 우선 작업자가 잘 숙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속도는 그 다음 일이다.
3. 부리절단 후에는 사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4. 부리절단후 닭들이 물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물과 충분한 급수면적을 제공해야 한다.
5. 디비커날은 항상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리는 디비커 기계를 통해 보통 위아래 부리를 동일하게 자르든지 윗부리가 약간 더 잘려나가도록 자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래 부리가 성장이 길어 아래 부리를 더 잘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가장 권장되고 있는 것은 아래 부리가 윗 부리보다 약간 길게 자르는 것인데 자르는 요령은 절단작업시 닭의 목밀을 약간 누르게 되면(혀와 아래 부리를 움추리게 함) 혀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아래 부리가 윗 부리보다 길게 되는 것이다.

디비킹을 하면 병아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것은



△ 디비킹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료허실, 탈항발생 등으로 생산성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누구나 알 것이다.

디비킹 이후 2~3일 간은 병아리의 음수량과 사료섭취량이 75% 수준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디비킹이 끝난 후에는 정상급이량이나 급수량보다 더 많이 급여해 주는 것이 병아리의 사료나 물의 섭취동작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5주령에 부리를 절단하는 농장도 있는데 이 농장의 경우 균일도가 94%, 초산일령이 1주 전후에 했을 때보다 2주 정도 빨라졌다는 의견도 있어 부리자르기의 시점과 효과에 대한 관련인들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장점이 정확히 잘려나가지 않은 부리는 다시 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숙련된 시술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술자에게 의뢰할 경우 수당 20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반면 동네 일꾼들을 쓸 경우 수당 15원도 채 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을 적게 들여 작업을 하고 있다. 80% 이상의 탈항은 카니발리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쫓는 닭은 디비킹이 안되었거나 잘못된 닭일 가능성이 크다. 사양가들은 만약 탈항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쫓는 닭을 찾아내 디비킹을 다시 해주면 탈항을 방지할 수 있다.

부리를 자른 후 보통 2~3초 정도 부리를 지지는데 이는 출혈을 막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며 질병감염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4. 맺음말

디비킹을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디비킹의 정확한 방법에서부터 시술자의 자질, 디비킹에 의한 스트레스의 최소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디비킹이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생산성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디비킹을 안할 경우 1수당 3개 정도의 계란을 손해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5만수를 관리하는 농장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디비킹을 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디비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양계**

**초생주는 겉보기 품질도
중요합니다만, 속품질이 깨끗한
초생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Hy-Line®

Hy-Line Layers

한 양 부 화 장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0336-642-구구팔구